

혁명에 관한 이야기 - 1

프로로그

글. 김인겸 역사문화 칼럼니스트

들어가며

4·19혁명이나 촛불혁명 같은 거시적 측면의 정치적·사회적 변혁 말고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로 인해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의 일상은 변한다. 1970년대 초반에 태어난 필자는 스무 살 전까지 아날로그적인 삶을 살았으나 입대할 무렵 나온 삐삐를 시작으로 이십 대 후반부터 삼십 대 초반까지는 휴대전화와 인터넷의 발전상을 지켜보며 이를 활용했으며, 마흔 전후부터는 스마트폰과 모바일의 세계에 포획된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현시대가 인공지능과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을 키워드로 하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어떤 분야의 혁명(혁명이라는 용어에 거부감이 든다면 커다란 변화라고 칭해도 무방하다)이든, 혁명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혁명이 현실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그 혁명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혁명에 가담하거나 이를 수용하고 때로는 이를 거부하기도 한다. 혁명은 의외로 우리 가까이에 있으며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 필자는 새로 연재하는 ‘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현재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주요 혁명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혁명의 정의와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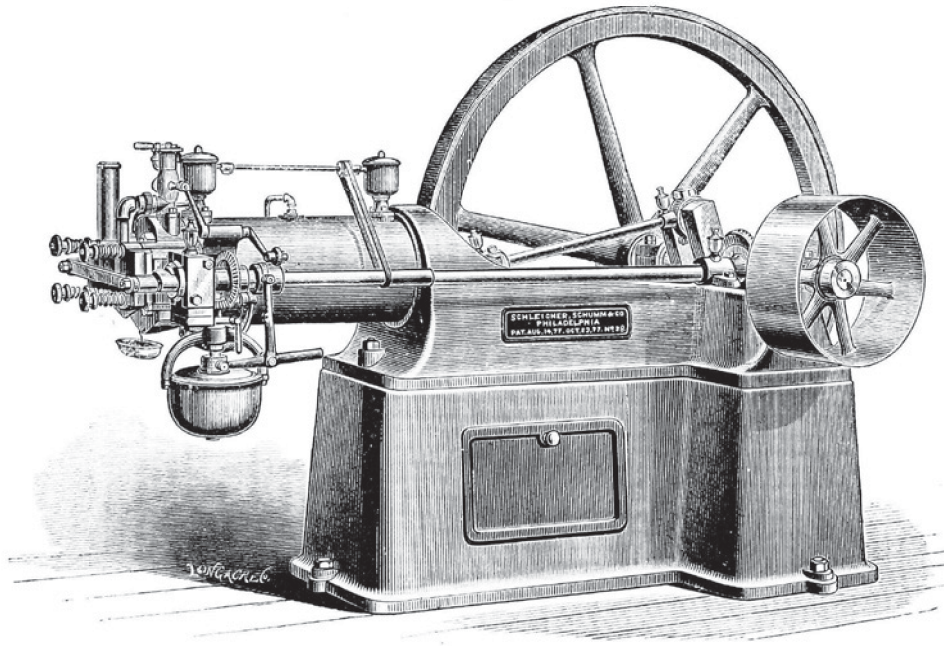
혁명은 한자로 ‘革命’이다. 혁명은 하늘의 명령, 천명(天命)이 바뀌었음을 말한다. 여기서 ‘바뀐다’는 의미의 한자 ‘革’은 원래 ‘가죽’을 뜻하는데, 이 글자는 동물 가죽을 가공하는 작업인 무두질을 형상화한 상형문자이다. 살아있는 동물의 가죽을 벗겨내어 인간이 쓸 수 있게 변형시키는 과정은 분명 엄청난 변화이다. 혁명으로 번역하는 영어단어 ‘revolution’의 어원 ‘volution’은 회전, 나사이다. 탄창이 회전하는 권총을 말하는 리볼버(revolver)도 여기에서 나왔다. ‘revolution’은 단순한 회전이 아니라 천체의 공전을 말하기도 한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무수히 많은 일이 벌어진다. 진화를 뜻하는 ‘evolution’도 같은 어원이다. 진화란 끊임없는 회전[volution]을 통해 밖으로[‘out’을 뜻하는 접두사 ‘e-’] 나온다는 것으로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질적 변화이자 도약이다. 그러니까 ‘revolution’은 멈추어 있지 않고 운동(회전)이 반복[‘다시’를 뜻하는 접두사 ‘re-’]되면서 질적인 변화, 즉 혁명에 해당하는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혁명[revolution]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어원 분석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실제 역사에서 찾을 수 있는 사건의 성격을 파악하여 혁명과 유사하지만 혁명과는 다른 것들과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혁명의 개념을 역으로 정립해갈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불의 사용은 인류의 진화와 문명 건설에 절대적 영향을 끼쳤으나 그 자체로 혁명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을 우연히 ‘발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발견을 혁명적 발견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발견 자체에 의도와 노력이 개입하는 부분은 크지 않기에 혁명과는 다르다. 여기에서 혁명은 어떠한 의도와 그 의도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의도가 좌절되는지 의도와 달리 사건이 전개되는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목적과 의도, 의식적 노력은 혁명의 기본전제가 되는 것이다. 씨앗이 떨어져 발아하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 과정을 관찰하고 그 원리를 발견한 일은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씨앗을 심고 재배를 하여 수확하는 행위는 의도와 노력이 개입된 일이다. 게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개간과 수리시설 확보 등 부대적인 작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노동력을 공급해야 하므로 정착 생활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수렵채집에서 농업으로 생산의 축이 옮겨가는 현상을 농업혁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농업혁명에서 혁명의 또 하나의 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 큰 틀에서의 페리다임의 전환이다. 기존 시스템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것을 혁명이라 하기는 힘들다. 산업혁명이라고 정의하는 18세기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어 19세기, 늦으면 20세기까지 진행되는 과학의 발전에 기반한 기계, 동력 기술의 진보는 오랜 기간 인간이나 동물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생산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꾼 데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내연기관과 전기, 기계의 활용은 생산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높여 인간의 삶 자체를 바꾸었다. 생산성의 급격한 증가 없이 자본주의의 전개는 불가능했을 지도 모른다.

이집트 무덤에서 발견된 기원전 3,500년 무렵의 농사짓는 모습 / 출처 : wattsupwiththat.wordpress.com





최초의 4행정 사이클 내연기관 / 출처 : 위키미디어

한편, 혁명은 혁명을 위해서든 혁명의 결과로서든 사회를 움직이는 주체의 변화에 불과하다. 이 부분에서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체가 바뀌느냐 그렇지 않고 기존의 주체가 존속하느냐에 따라 전자를 혁명, 후자를 쿠데타로 구별한다. 쿠데타(coup d'état)는 국가를 때린다는 의미의 프랑스어이다. 즉 쿠데타는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행위로 좁게 보는 개념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인 10·26 사태 수사를 위한 합동수사본부장인 보안사령관 소장 전두환은 1980년 12월 12일 군부 내의 사조직 하 나회를 이끌고 당시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체포하며 군사반란을 일으켜 일거에 모든 권력을 틀어쥐었다. 이후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전두환은 5공화국의 대통령에 취임한다. 현재 12·12 사태라 칭하는 이 사건은 전형적인 쿠데타이다. 3공화국과 유신정권(4공화국)에서 5공화국으로의 이행은 주체의 본질적 변화가 없는 일부 정치군인 내부의 권력 이동에 불과하다. 쿠데타 이후의 지배계층이 아무리 개혁을 외치더라도 대개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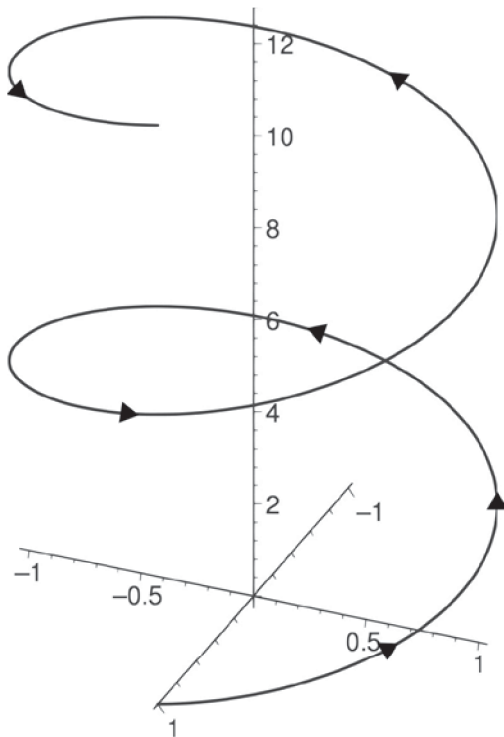
주체의 교체라는 혁명의 조건은 또 다른 조건이자 혁명을 정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을 추론 가능케 한다. 그것은 바로 사회 자체의 질적인 변화이다. 필자는 이 대목에서 역사를 이해하는 몇 가지 관점을 소개하고 싶다. 역사관은 크게 둘로 나눈다. 순환론과 직선론이다. 먼저 순환론은 역사가 변화하기는 하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관점이다. 직선론은 역사란 단순히 순환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향점으로 직선운동을 한다는 입장이다. 직선론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퇴보론은

잠바티스타 비코 초상화(프란체스코 솔리메나의 유화) / 출처 : 위키피디아



빛나는 문명이 점차 빛이 바랜다는 주장으로 ‘옛날이 좋았다’고 말하는 의고주의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진보론, 혹은 발전론은 역사가 더 긍정적인 상태로 나아간다는 견해인데, 기술지상주의나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사관이 이러한 관점을 가진다. 결국 일반적으로 혁명을 말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발전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역사의 진보를 이해할 때 이탈리아의 역사철학자 비코(Giambattista Vico, 1668~1744)의 통찰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 비코에 의하면 역사는 무조건 직선으로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순히 순환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비코는 역사란 언뜻 보기에는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것 같아도 자세히 살펴보면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였다. 즉, 원 순환도 아니고 직진도 아닌 나선형[spiral] 전진이다. 나선형 전진 모형은 두 가지를 함축한다. 전진은 하되 후퇴 없는 단순한 직진이 아니고,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갔다 하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천천히 발전한다는 것이다. 즉 나선형 전진으로 역사를 이해하면 역사에서 일시적 퇴보와 장기적 관점에서의 진보를 모순으로 여기지 않고 수용할 수 있다. 혁명은 발전을 추동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혁명에 뒤이어 나타나는 보수반동에 의해 역사의 발전이 일시적으로 지체되기도 한다. 프랑스혁명 뒤의 나폴레옹 정권과 뒤이은 메테르니히의 빈 체제가 좋은 사례이다.



나선운동의 이미지 / 출처 : 위키피디아

혁명을 이야기하는 이유

왜 혁명을 이야기하는지 밝히기에 앞서 다시 한번 혁명의 의미를 정리해보자. 혁명이란 의도를 가진 주체가 기존의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식적 노력을 행한 결과 사회의 주도 계층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가 질적으로 변화한 사건이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 이 사건에서 발전적 측면을 찾을 수 있을 때 역사는 마침내 이 사건을 혁명이라고 평가한다.

현시대의 많은 변화가 훗날 혁명으로 평가될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다수는 현재의 변화가 속도도 빠르고 질적으로도 급격하다는 점을 인지하는 듯하다. 다만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변화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필자는 18~19세기에 유럽에서 전개된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다시 되새겨볼 계획이다. 과거와 현재가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작업이 현재의 혁명적 변화의 본질의 일면이나마 간파할 수 있는 거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